중앙강연단 , 농업농촌부서 강연

중앙강연단 성원이며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류국중은 7월 29일 농업농촌부에서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강연했다.

류국중은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의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과 〈결정〉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터득하는 것을 둘러싸고 20차 당대회이래 당과 국가 사업이 이룩한 중대 성과,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의 중대한 의의와 심원한 력사적 영향,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중대 의의와 총적 요구, 〈결정〉이 제출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대 조치,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시달하는 기본 요구 등 면으로부터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깊이있게 해독했다.

류국중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3농’ 전선은 전원회의 정신을 잘 학습 관철하는 것을 당면과 금후 한 시기의 중대한 정치임무로 간주하고 전원회의 정신 학습 관철을 ‘3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와 결부시키고 관통시키며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있게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결책, 포치에 절실히 통일시키고 못을 박는 정신으로 ‘3농’ 분야의 각항 개혁 임무의 시달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보고회는 영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였다. 농업농촌부, 수리부, 중국기상국, 중화전국공급판매합작본사 등 부문과 단위의 당원, 간부들이 각기 주회장과 분회장에서 회의에 참가했다.

이외에도 중앙강연단은 상무부, 군사위원회 기관, 공업정보화부 등 부, 위원회에서 강연을 전개했다.

/ 신화넷

외교부

억제와 압박 , 중국의 발전 막을 수 없어

바이든정부가 일본, 화란,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이 중국 반도체 제조회사에 반도체와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추가로 저지시키는 새로운 규정을 8월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7월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경제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범안전화, 도구화하면서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로 하여금 중국 반도체산업을 압박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국제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글로벌 생산망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이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림검은 “억압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고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의지와 능력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며 “관련 국가들도 위협에 단호히 저항하고 공정하고 개방된 국제경제무역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며 자국의 장기적인 리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제방송

올림픽 특수 노린 중국 기업의 ‘출전 행보’

아기자기한 기념품부터 참가 선수의 장비, 첨단 스포츠 기자재까지… 중국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빠리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올림픽 대목을 맞아 ‘중국제조’ 제품이 국제무대에 오르고 있다.

7월 8일, 산동성 태산서표복합재료회사 생산작업장에서 한 일군이 탄소섬유 자전거 프레임(车架)을 점검하고 있다. / 신화넷

◇ 뜨거운 ‘올림픽 특수’

북경 왕부정에 위치한 리녕매장에선 탁구 시리즈 전문용품이 인기다. “이 시리즈 전문용품은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빠리올림픽 국가대표팀의 유니폼과 동일한 모델이다.” 리녕매장 직원은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고 말했다.

리녕뿐만 아니라 안타(安踏) 매점에서도 경기복을 입고 복싱, 력기, 태권도 동작을 취한 인체 모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안타 관계자는 한 의류를 가리키며 “이 티셔츠는 불티나게 팔려 온라인에선 이미 품절”이라면서 “오프라인에서도 구할 수 없는 사이즈가 많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소비’ 열풍은 데이터로도 립증되였다. 온라인 할인 쇼핑몰 웨이핀후이(唯品会)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 ‘올림픽 동일 모델’ 등 관련 제품의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계 소비 시즌에 올림픽 효과가 맞물려 트레킹 슈즈(越野跑鞋), 드라이핏 티셔츠(速干T恤), 폴로(Polo) 티셔츠, 아동 자외선 차단 의류 등 품목의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

◇ 존재감 드러내는 ‘중국제조’

2023년부터 절강성 의오국제비즈니스타운의 스포츠용품업체에는 다량의 올림픽 관련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기발, 펜던트(挂件), 운동복, 팔찌 등 올림픽 관련 제품이 바다 건너 빠리로 향했다. 의오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 1월—6월 의오의 스포츠 용품 및 장비 수출액은 50억 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나 늘었다. 그중 프랑스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빠리올림픽조직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 마스코트의 80%가 ‘중국제조’이다. 각종 망원경, 응원봉, 응원수건, 열쇠고리 등 올림픽 경기 관련 제품도 주로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다.

‘중국제조’뿐만 아니라 ‘중국 스마트 제조’도 눈에 띈다. 7월 26일, 세넬강에서 열린 2024 빠리올림픽 개막식에선 심수시 아이비썬(艾比森)의 ‘블랙 테크놀로지’(黑科技)가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세넬강 량쪽에 늘어선 아이비썬 LED 대형 스크린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고화질 디스플레이에 개막식 현장을 담았다. 아이비썬 관계자는 “이번 올림픽에 50여개 스크린을 제공했다.”면서 “100여평방메터에 달하는 개막식 메인 스크린 역시 자사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중국 브랜드’ 수출 강세

빠리올림픽 ‘차이나 하우스’(中国之家)가 7월 24일 빠리에서 문을 열었다. 중국올림픽위원회 공식 피트니스기구(健身器材) 공급 업체인 수화스포츠는 ‘차이나 하우스’에서 다양한 피트니스 제품을 선보이며 중국 스포츠 과학기술 응용 분야의 선진 성과를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수화스포츠 부총재 리효봉은 “올해 입점한 제품은 기능 면에서 뿐만 아니라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인터랙션(娱乐互动性), 과학적인 면에서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올림픽 특수를 맞아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는 ‘중국 브랜드’도 늘고 있다. 밀크티(奶茶) 브랜드 바왕차지(霸王茶姬)와 시차(喜茶)는 빠리에 림시 매점을 열었고 판판(盼盼)식품은 2024 빠리올림픽 중국스포츠대표단 공식 후원사로 선정되였다. 알리바바 인공지능(AI) 에너지 관리 공구인 ‘에너지 엑스퍼트’(能耗宝)는 빠리올림픽의 모든 경기장에 도입되였다.

한 전문가는 올해는 스포츠대회 ‘풍년’이라면서 빠리올림픽, 남미주축구대회, 유럽축구대회 등 굵직한 스포츠 경기가 있어 기업의 브랜드 지명도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중국 브랜드’의 수출 적기로 시장 점유률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신화넷

향항・오문 외국인 단체관광객 해남성 무비자 체류 허용

1월 26일, 해남성 해구 미란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들. / 신화넷

국가이민관리국이 7월 30일부터 향항・오문 지역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해남성 입경 144시간 비자면제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중국과 수교한 국가의 국민은 향항과 오문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려행사의 단체관광(2인 이상)을 통해 무비자로 해남에 입경해 려행할 수 있다. 무비자 체류 기간은 1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중국과의 상호 비자 면제 협정 또는 중국정부의 기타 비자 면제 대상 국가는 해당 정책을 따른다.)

/ 신화넷

미국련방정부 부채 35조딸라 돌파

재정 신뢰 흔들리자 딸라 지위도 흔들

미국 재정 적자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월 29일, 미국 재무부 공식 사이트가 공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련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35조딸라를 넘어섰다. 이는 중국・독일・일본・인도・영국 5개 국가의 경제총량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미국의 독립적인 연구기구인 련방예산문책위원회 회장 마야 맥귀니아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3년말 기준 미국련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34조딸라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3개월 이전에는 33조딸라, 더 앞서 3개월전에는 32조딸라를 기록했다면서 “이렇듯 대차(借贷)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부연했다.

미국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이에 대해 미국인 1인당 약 10만 4,000딸라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부채 상승의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 의료비 상승, 세수 부족 등을 꼽았다.

◇부채 급증, 리자만 해도 어마어마

“미국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감당하지 못할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는 미국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980년대에 들어 막대한 차입을 해온 미국은 1985년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전환됐다. 이후 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했고 최근 몇년 동안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9월 20조딸라, 2022년 1월말 30조딸라를 돌파했다.

2023년 6월 이후 미국 부채는 100일마다 약 1조딸라씩 늘어나 그해 12월에는 34조딸라에 달했다. 이는 미국 의회 예산국이 2020년 1월 전망한 것보다 5년 앞당겨진 결과다.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향후 지급해야 할 리자 부담도 동시에 커졌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부채 리자 부담은 향후 30년 동안 련방정부 예산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할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솟는 미국 부채와 리자 부담은 겉과 속이 다른 미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정부 데이터와 시장 상황에는 ‘파란불’이 켜졌지만 미국에는 현재 력사상 드문 고부채・고금리・고물가 현상이 나타났다. 《월가일보》는 바이든정부 출범 이후 물가가 총 20% 상승했지만 임금 인상은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부채는 35조딸라를 돌파하면서 미국 사회여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에 제롬 파월 미국련방준비제도리사회 의장은 ‘어른스러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7월 29일 찍은 미국 워싱톤에 위치한 재무부 건물

◇‘최대 예측 가능한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JP 모건체이스(摩根大通)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예측 가능한’ 위기로 공공부채를 꼽았다.

1980년대초 레이건정부의 대규모 감세 조치 이후 련방정부 부채는 빠르게 증가했다. 이후 정부 예산과 부채 문제가 점차 정치화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간 힘 겨루기 공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게 된 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량당 모두 정치적 립장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시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이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서 부채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량당 모두 부채의 주요 요인인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몇년 동안 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통제 불능의 부채로 ‘위험한 궤도’ 올라타

미국이 신규 부채를 발행해 지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딸라 패권 덕분이다. 미국은 딸라 패권을 믿고 금리 변동을 통해 자국의 리스크를 외부에 전가하고 글로벌 부를 거두어들여왔다. 그러나 장기간 부채가 쌓인 까닭에 위기의 씨앗이 심어졌다. 경제학자와 력사학자 모두 미국의 부채 데이터에 새로운 위험한 지표가 나타나거나 미국의 금융 패권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금리 기준 올해 미국 련방재정은 국가 부채 리자로 8,700억딸라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처음으로 국방비 지출을 넘어선 금액이며 래년에는 총 리자가 1조딸라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니얼 퍼거슨은 력사적으로 국방비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강력한 힘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스빠냐 합스부르크 왕조가 그랬고 구제도하의 프랑스, 오스만제국, 대영제국도 그랬다. 올해부터 미국은 이 법칙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퍼거슨교수의 말이다.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이 재정 적자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며 언젠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채는 국가의 신용과 직결된다. 통제 불능의 부채로 인해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딸라의 지위와 신뢰할 수 있는 대출 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와 기관이 갈수록 늘고 있다.

오래동안 최고 수준을 유지해온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은 지난 10년 동안 국제신용 평가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등’됐다.

2023년 8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거버넌스 수준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리유로 미국의 장기 외화 발행자의 채무불리행 등급(IDR)을 AAA에서 AA+로 강등시켰다.

미국 경제학자 데스몬드 라흐만은 미국 공공재정이 올라탄 ‘위험한 궤도’가 딸라와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어느 시점에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정부가 부채 문제를 통제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시는 미국정부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딸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신화넷